베드로전서 1:3-9 “은혜와 평강” 2026.5.3 주일 설교 | 소그룹 공과

[인트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에 이르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뿌림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순종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우리의 현재는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1. 먼저, 지난 모임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세요.

2. 성경 본문과 아래 설교문 발췌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 23. 그래서, 피뿌림이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곧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혹자는 롱기누스가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뿌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진실은, 예수께서 주어가 되어서 스스로 그 죽음으로 다가가신 것이지요.
>
> 24. 그럼 순종함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한 모습이었지요. 그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
> 27.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지금의 우리 형편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의지하게 될 때, 자기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 아래 질문들을 설교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길이라는 사실은 지금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그만두고 싶어하는 “나그네 길”은 무엇입니까?

-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지금의 형편보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내려놓게 되는 불평이나 비교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